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일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할 것이며, 나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꿈이 있다. 옛날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도 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때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의 흔한 질병들은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나 질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만, 기술력의 발전이 이를 해결하고 있다. 21 세기인 현재 처방은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에 걸쳐 미래에는 단순히 어떤 처방의 수준을 넘어 단순히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고, 진단하고, 개인의 맞춤 치료가 더욱 발달하는 쪽으로 진행 될 것이다.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의 통합이 스포츠로 하여금 이렇게 예방하고 행복하고 개인의 맞춤 치료를 더욱 활발하게 해줄 것이다. 요즘 우리 학교를 보더라도 메디컬 쪽으로의 연구와 투자가 활발한 만큼 미래에는 더욱더 높은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기술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나 활동 상태를 분석해서 볼 수가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개인의 건강과 함께 의료 분야에 관련된 모바일 앱이 정말로 많다. 모바일 유저들은 간단하게 본인의 상태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 더 발전하여 나아가 먼 미래에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정확한 진료 및 치료가 원격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의사들의 의학적인 견해 및 지식 등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학과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맞춤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과학자 및 공학자들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모바일에 기술력을 더하고, 여기에 의료 전문가들의 지식이 더해져 의료 서비스가 행해질 것이다.

모바일과 메디컬의 만남이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성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의 장이 있는데 올해 열린 CES2020에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치료'였다. 디지털 치료는 의학적인 장애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진단하고 치료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모바일과 메디컬이 만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디지털 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치료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훨씬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집에서 모바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스마트 간병인인 '프리아'는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서 미국의 블랙앤데커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필로헬스와 함께 만든 것이다. 프리아가 선보이는 기술은 약을 꾸준히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기술을 프리아라는 간병 로봇을 통해서 실현했다. 기본적으로 약의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며 그 약까지 챙겨주고,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화상 통화를 제공하여 의료진과 대화 및 진료가 가능하게 도와준다. 이러한 기능들과 더불어 당사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건강 보조 기능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이렇게 모바일과 메디컬의 발전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